

그 이야기

신윤식

여기 아무나 쉬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가
팽개쳐져 있습니다.



편안한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복의 너울을 쓰고
산 너머 다가온 바람처럼
그 속을 시원하게 뚫아주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외면당하며
팽개쳐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로는
쉽게 대화가 되지 않아
깊은 아픔으로 되돌아오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꼭 막힌 가슴속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됩니다.

어둠의 발에서 춤추는
희미한 그림자들만
가물거리다 사라지고
길게 늘어뜨린 발걸음만 무거운데
그 이야기 속에
영광으로 존재하는 형상
한분을 향한 그리움만 커져갑니다.

MATHETES

제23권

38

2015년 9월 20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나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주요전설

성소를 향한 칼

겔 21:1-7

구약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인간의 과거 죄에 대한 기록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 인간의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자’는 각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은 과거의 인간과 지금의 우리가 다르고 그들의 죄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죄를 범하지 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변함없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인간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인간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현대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만 가고 있는 것처럼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믿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웃집 불구경 하듯 보서는 안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죄의

자리로 밀어 넣으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부활이 죽음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없이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죄와 심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놓기 위함인 것입니다.

에스겔 21장에는 칼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와와 칼을 말하면서 여호와가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어 버리고 모든 육체를 남과 북까지 치겠다고 말합니다(3,4절). 칼로 치겠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심판의 선언입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꽃치지 아니하라 하셨다 하라” (5절)고 말씀한 것처럼 한번 뺀 여호와와 칼은 다시 칼집에 꽃치지 않습니다. 심판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일 없이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엄중하고 중지되지 않은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살았다고 할 자가 있었습니까? 누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었다는 것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통해 드러내시는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며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영광의 장소이기에 그들에게는 신앙의 중심지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그곳으로 향하여 소리 내어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여호와와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이스라엘에게서 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와 심판의 칼이 가장 먼저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의 성소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칼이 왜 먼저 예루살렘 성소를 향할까요? 성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 해 계시는 영광의 곳이기 때문에 성소를 향한 이스라엘의 열심과 정성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칼이 성소를 향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신앙의 행위 모든 것이 죄라는 결론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상으로 더러워진 성소로 여호와와 칼이 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에 대해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성전에 이방의 신을 들여 놓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그들의 생각이 이방인이 우상을 신앙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신앙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신앙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악을 쌓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14,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반쩍반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기를 성경이 말하는 죄와 심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심판으로 끌여가기 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죽이는 여호와와 칼이 성소를 향하고 모든 성문을 향해 세워 놓았다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앙은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영광의 장소로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방인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복을 누리고 평안한 삶을 누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들을 살리는 성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소는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소를 통해서 ‘우리는 죽은 자다’ 로 바라보는 것이 성소에 의한 바른 자기 해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고 말씀하겠습니까? 칼집에서 뺀 여호와와 칼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20:47절에서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

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고 말씀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상한 것은 왜 의인이 악인과 함께 여호와 의 칼을 받아야 하는가 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여호와 의 칼이 향할 곳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여호와 의 칼이 피해가고 오히려 의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또한 각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바람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면 의인이라 해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 되었으니까 난 이제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났고 복을 받아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 의인인가를 모르는 것이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벗고 의인으로 여김 받게 된 것이 사실이고 심판에서 건짐 받고 구원 되었으며 죽은 자가 아닌 생명에 속한 산 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의 칼이 우리를 향해 있는 죽음의 자리에서 베풀어진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의인 되었다는 것을 이제 죽음, 심판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음과 심판에서 건지시고 의로운 자로 여김 받게 하신 것은 도무지 의로운 자 될 수 없는 우리가 의롭게 된 원인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의인 될 수 없는 자를 의인되게 하신 그 원인과 결과가 담긴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인되게 한 원인과 결과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의인되게 했고 심판에서 건짐 받았다’ 는 것만 있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

았다’ 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 점차 죄인이라는 말이 귀에 거슬리게 됩니다. 의인 되었고 구원 받았는데 왜 계속 죄인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생명에 있게 하신, 즉 원인과 결과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인되었거나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의인은 늘 자신의 죽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에 그 마음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복음을 알고 의인됨을 아는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성소가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을 보기 보다는 성소가 존재하는 이스라엘을 생각했고 성소를 찾는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은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연결하여 생각한다면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 되겠다’ 라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결과를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결과는 여러분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확정하신 결과의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놓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끌어가시는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습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조차도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죄의 모습을 간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은혜 아래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남게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향해 칼을 빼셨다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성소는 성소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겔 11: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이스라엘에게 성소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성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 해주심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이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겔 37:26-28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소라고 생각하는 것은 칼로 치시고 대신 하나님의 성소를 그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는 어느 지역에 고정되어 있어서 성소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성소가 되어 주심으로 심판 받아야 할 자들을 거룩한 자로 여김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소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실 것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칼이 성소를 향해 있다는 말씀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내 놓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행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해 칼을 빼어 드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도 여호와와의 칼 아래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성소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소에서의 열심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소는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지도 않으시고 처음부터 용서라는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성소에 우리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로 나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와의 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빼어 드시고 우리를 대적하시는데 피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모두가 죽은 자일뿐입니다. 죽음, 심판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주일오후설교

(8.30일 설교 79강)

종과 상전

엡 6:5-9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에게 계속 말해왔던 것은 신자의 신자 됨에 대한 원인과 결과입니다. 본래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고 진노의 자식이었을 뿐인데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 되게 하셨고 신자 되게 하심으로 어떤 신분으로 새롭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바울의 증거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신자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로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본문의 종과 상전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 있게 된 빛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종과 상전은 국과 국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전은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인 반면에 종은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종은 상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상전은 종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종의 신분이나 제도는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 구조 안에서 종과 상전은 사라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 구조 안에서 상전은 분명 존재하고, 그 상전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위치의 인간 또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과 상전은 현대 사회에서도 존재하고 신자 또한 종의 위치, 상전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보다는 상전의 위치에 있고 싶어 합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은 관계입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권력과 힘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때문에 신자는 비록 사회라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실제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사회라는 현실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과 사고를 가지고 자기를 위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신자의 신자 됨은 교회 생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긴다면 그는 신자 됨에 대해 무지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조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서 종과 상전은 사회적 존재 위치를 초월하여 전혀 새로운 관계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들을 향하여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5-7절)**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제 종의 입장에 있다면 바울의 말은 불편하게 들릴 것입니다. 종은 그 신분만으로도 괴로운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종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종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종의 입장을 고려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입장을 바울이 고려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전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관심은 종이든 상전이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조건과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만 향할 뿐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신 조건과 형편에서 자신이 처한 신세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만 마음을 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것은 상전도 다르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상전들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고 말합니다.

상전에게는 종을 위협하는 것을 그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종과 상전의 참된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종의 상전은 그리스도이시고 상전의 상전도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주께 순종해야 할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이 있게 하신 사회적 조건을 마치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주께 순종하는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참된 신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기는 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왕이면 이기는 자의 위치와 조건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즉 이기는 자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른 수단과 방법을 넘어서라도 이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신자는 이기는 것만이 최고이고 복이 아니라 지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역할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가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모두가 종이고 모두가 상전입니다. 누군가에게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누군가를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라도 참된 복음을 말한다면 마땅히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너만 아냐?’ 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참된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

문에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몸, 교회의 관계에서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은 나와 질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을 세우며 충돌과 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형편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 풍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풍족한 사람을 부러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것을 부끄러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편의 어려움과 풍족은 모두 지나가는 것일 뿐이고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이며 신자는 이미 그 세계의 백성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조건과 위치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여기거나 다른 사람보다 낮다고 해서 우월

한 자리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엡 2: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고 말한 것처럼 신자는 이미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로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긴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이라는 신분도 상전이라는 신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상전이 되 상전으로 살지 않고 종이되 종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신자로써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에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이미 주어진 영원한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 바랍니다.

수요일설교

(9.16일 설교 68강)

복에 대한 오해

창 27:1-14

복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집니다. 그리고 복이 주어짐에 있어서 인간의 정성과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도 복을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자에게 주시는데 사람들은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복을 중심에 두고 복을 차지하기 위해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시작합니다. 이삭이 늙어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서를 불러 들에 가서 사냥을 하여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예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하나님의 복을 계승 받을 자로 생각합니다. 맏아들이 복을 계승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에서는 이삭이 좋아했던 아들이기에 그 생각은 더욱 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에서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을 하여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이삭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을까요? 아마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 받을 또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을 기쁘게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이것이 복에 대한 이삭의 오해입니다.

이삭이 축복을 하겠다고 하지만 축복의 대상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복의 계승자를 자신이 선택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말을 리브가가 엿듣게 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에게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삭에게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가져온 것처럼 하여 먹게 하고 축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계획에 야곱은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은 매끈매끈하여 이삭이 자신을 만지면 에서가 아닌 것이 발각될 것이고

자신을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여겨져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리브가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대화를 보면 이들은 어떻게든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도 이삭이 축복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 역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입어서 에서처럼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고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에서 어쨌든 억울한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말대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이삭의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아비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축복이 최소대고 대신 저주를 받아야 하고 축복은 에서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축복을 뺏긴 에서는 이삭에게서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 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때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명예를 네 목에서 떨어버리리라 하였더라” (39, 40절)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이처럼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의가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도 복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야곱처럼 남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잘 살기를 바라는 모든 것이 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왜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에게 속아서 축복하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축복을 취소하고 야곱이 우려했던 것처럼 저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나무라지 않은 것은 비록 속임수에 의해 야곱을 축복하였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향해 있음을 생각했기 때문으로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야곱이 에서보다 인간성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아닌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야곱과 에서가 다른 인간일까요? 에서 역시 야곱과 다를 바 없이 복에 집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로 향해 있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야곱과 같은 복을 자신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가 저주 아래 있게 된다 해도 인간에게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결국 야곱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속임수가 마치 하나님에 의한 일인 것처럼 보여지기 쉽지만 야곱의 속임수는 복에 집착한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야곱은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느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늘의 참된 복에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미 복

있는 자로 존재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복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 위해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문에 별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별미를 만들어 바쳐야 한다고도 하고 ‘신년별미축복성회’라는 것을 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스스로 교회 아님을 증거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에 대해서 인간의 뜻은 개입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복을 받기 위해 힘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이미 주어진 복의 세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벤전 3:14절을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육체, 성공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가게 되며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기뻐하며 고난에서도 주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복의 세계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뜻을 두게 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 복 있는 자임을 알고 자신이 그러한 복 있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면 그것만으로 그는 복의 길을 가는 신자입니다.

칼럼

이단 148 - G12(지투엘브)

이렇게 이단의 공통점은 신비주의와 직통계시로 연결되어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자르의 책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가 음성 들었다는 내용이 수십 번 등장하고 심지어는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에 서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다고 말한다. 또한 예수님이 손으로 자신을 만졌고 손으로 만지는 곳마다 무거운 죄가 벗겨진다고 하면서 이것을 거듭난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거듭남이 기록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셔서 죄가 용서되는 것도 없다.

이러한 신비적 체험은 세자르만이 아니라 그의 부인 클라우디아에게도 나타났다고 하는데, 특히 그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 다시 한 번 세례 받을 것을 말씀하셨고 멕시코인 선교사가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하기도 한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내려오심을 영적으로 느낀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세례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과 비슷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세자르의 책에는 축귀, 축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처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성경 이해와 함께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현상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들이 G12가 빈야드 운동, 신사도 운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G12라는 프로그램이 한국의 기독교에 조금씩 정착되고 정당화하는 이유는 교회성장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교회성장이란 대부분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현상에 의한 교회에서 교회로의 수평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음은 교회성장으로 증거 되지 않는다.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성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미화하며 복음으로 인한 정당한 결과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다면 이단의 성장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이단이라고 해서 외면 받고 결국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교회

성장을 복음의 정당성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 말한다면 이단이라 할지라도 성장했다면 정당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해도 정당하지 못한 교회라는 결론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교회가 성장하면 이단이라거나 교회가 성장하면 안된다는 뜻도 아니다. 교회가 성장하든 성장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말한 것처럼 G12는 12명의 훈련된 제자를 통한 통치를 뜻한다. 여기에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셀이다. 예수님이라는 1명의 스승이 12명의 제자를 키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것처럼, 1명의 스승과 12명의 제자가 견고한 셀을 형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건강한 셀이 생명력을 갖고 번식하면 무서운 핵폭발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스승과 제자라는 견고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 스승을 두어야 하고 새 신자도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면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하며, 그 제자도 언젠가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어 소그룹을 인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1명의 영적 아버지가 12명의 영적 자녀를 잘 양육시켜 놓으면 그들도 결국에 영적 아버지가 되어 각기 12명의 제자를 삼게 된다는 것인데, 이들이 말하는 셀은 결국 다단계 판매 방식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셀로 구성되는 G12는 모든 신자를 잠재적 리더라고 말한다. 모든 신자는 반드시 어느 한 셀에 속해야 한다고 하고 '영혼구원-훈련-제자화-리더'의 과정을 거쳐 영적 아버지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 땅 위에 영원히 존재할 교회를 위해 준비한 예수님의 목시적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곧 G12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고 하늘로 가셨는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G12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복음과 무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무관하며 교회 성장에 눈 먼 자들의 놀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꽃머느리밥풀)

오늘의 말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나하시나니 그랄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나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아여
상하고 통화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나하시리이다
(시 51:16-17)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전 예배

11:00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92장**
교 독 문 **29(시65편)**
기 도 **조규연 장로**
찬 송 **94장**
성경봉독 **골 21:1-7**
설 교 **신윤식 목사**
성소를 향한 칼 (46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144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5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이영민 장로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오후 예배

14:30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197장**
기 도 **김옥자 집사**
찬 송 **262장**
성경봉독 **엡 6:14-17**
특 송 **김옥분 집사**
설 교 **신윤식 목사**
잔타의 사람 (82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450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박영선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신윤식 목사

창세기 69장

은석소식

1.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을 세워
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
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신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2. 재건교회 97회 총회가 21일(월) 19시에 마산재건교회당에서 개최
됩니다.